

조선제품을위한교류에 생명을바친 쓰베트
군대와 생활재료사료의이름을 조선인민은
어울어있지않으리라!

SHIPPING ADVICE 2012
BOX 7
ITEM
COPY NO.

7
2

조선원수책

No. 9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제작선풍부

1948 12

차례

- 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을 위시한 제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의 설정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다.....
- 二、 군중선동사업강화를 위하여.....

클래드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을 위시한
제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의
설정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쏘비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을 위
시한 제민주주의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대사를 교환
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조선 전체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조
선인민의 유일한 중앙정부로서의 당당한위신과 권리를 국제
적으로 시인시키었으며 조국의 민주발전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국제적으로 튼튼이 보장받게하는 거대한 정치적의의
를 갖는다.

지난 十월十일 지구의 六분지一을 차지하는 나라 우리의 린접
국가이며 우리의 해방자인 쏘비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은 극동
의 평화와 량국인민의 공동한 행복을 위하여 량국간에 외교관계
를 설정하며 해당한 경제관계를 설정하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정부수상 김일성장군의 서한에대한 쓰베트사회주의공화국 동맹정부수상 쓰딸린대원수의 서한을 보내여왔다.

쓰딸린대원수는 자기회전가운데

『통일적독립국가건설에대한 조선인민의권리를 시종여일하게 옹호하는 쓰베트정부는 조선정부의수립을 환영하며 조선의민족적부흥 및 민주주의적 발전을위한 귀정부의 성공이있기를 바랍니다.

쓰베트정부는 쓰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사이에 의교관계를설정하며 대사를교환하고 이와아울려 해당한 경제관계를 설정하겠다는것을 표명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이역자적 쓰딸린대원수의 회전은 조선민족의 민주주의적자

주독립과 조선인민의 국제적 권리를 시종여일하게 옹호해주는 쏘베르사회주의공화국동맹의 일관된 성의의표현이며 세계약소민족의 자유와 권리와 독립을옹호하며 존중이하는 위대한쏘베르동맹의 전통적 대의정책을 다시금 전세계에 표시하여 주는 것이다.

쏘베르사회주의공화국동맹은 제二次세계대전에서 팫쇼독일을 격파하고 팫쇼의 유린으로부터 서구라파와 동구라파의 제민족들을 구원하였으며 동방에서의 일본제국주의를 격파하고 동방제민족들을 일제의 통치와 유린으로부터 해방시키어 주었을뿐 아니라 우리조국을 직접해방시켜주었으며 조국의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원조해준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약소민족의 진정한 은인이 것이다.

쏘베르사회주의공화국동맹은 철두철미 민주와 평화와 제인

민간의 자유평등을 존중하며 약소민족의 권리와 독립을옹호하는 세계전보력량의 위대한성색인것이다。

이와같이 위대한 쏘베르동맹이 우리공화국을 첫번으로 시인하고 우리공화국과 외교관계 및 경제관계를 설정할것을 응낙한것은 자주독립국가를건설하는 조선인민의 자신력을 더욱 재고시키며 국제반동세력과의 가혹한투쟁에서 공화국의 장래를통성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행복을보장하게되는 강력한국제적 담보로되는것이다. 과거 리조말엽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외교관계 및 경제관계를설정햇는일이있다. 그러나 그대부분은 외래자본주의열강들의 무력적 강압하에서 조선에강요된 침략적내용을가진 불평등한조약이었다.

一八七六年 일본과의 체결한 강화수호조약이 그대표적인것

으로서 그 조약 내용을 보면 부산 인천 원산의 삼항을 (三港)
개방하고 이 지역에서 일본인이 자유로이 통상할 수 있으며 이
사항에다 일본인의 영사 (領事) 를 설치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조약에는 조선의 의무만 규정하였고 일본에게는 아모런
의무도 부담시키지 않은 불평등적이며 굴욕적인 것이다.

이 조약으로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경제침략의 길이 열
리게 되었고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에 속화하기 위하여 침략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다.

이 조약은 조선이 반식민지적 역사계단으로 드려가는 첫걸음을 으
로 되었으며 필경에는 저 역사적 비극인 一九一〇년의 망국의
길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아와 같은 절례는 오늘 남조선에서 재연되고 있으니 즉 남조선에서 자기군대의 계속주둔을 희책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소위 유·엔조선위원회의 간판밑에 남조선단선을 실시하며 자기들의 주구로서 피뢰정부를 날조해내여 그를 조선정부로 가장하고 소위 「한미조약」을 체결하였다.

오늘 세상에 알려진 소위 「한미조약」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심을 송두리채도록 시킨 가장대표적인 야비한 조약인 것이다.

즉 한미회담의 내용을 보면

- 1 미국인의 무역자유
- 2 미군의 한국국방군지휘권
- 3 외교권의 미국인행사

4 미국인의 범죄 사실이 발각된 시에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반반식 선출하여 재판하는 치외법권
등의 5개 조가 서명조인 된 것이다.

이외에도 그들은 소림광업 (小林鑛業) 과 상동중석광산 (上東重石鑛山) 의 개발권을 요구하였으며 여러 땅에 땅과 건물들과
함께 반도 (半島) 호텔까지 빼어서 가졌다. 이 조약에는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축망으로 되는 미군의 철퇴문제는 일언반구
도 취급하지 않았다. 도대체 전형적인 종주국과 식민지와의 관
계를 규정해 노은 이따위 문건이 어찌 동등한 국가 사이에 체결
되는 조약이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미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 협조를 원족으로 한다고 자
칭하는 외교정책인 것이다.

천추만대의 매국역적 리승만은 이를 가르쳐 미국의 원조라고 하며 소기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했다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 하는 서구반동국가들은 자기의 대외정책을 제약 소국가들의 자주권을 박탈하고 예속을 강요하는 침략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르 사회주의공화국간에 설정된 외교관계는 상호간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동등한 형제적 친선에 기초한 평등적이며 동권적인 외교관계이다. 오늘 레닌-쓰릴린당이령도하는 쏘베르동맹의 대외정책은 모든 국가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각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일찌기 쓰 달린 대원수는 쏘루조약 체결에 제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셨다.

「조약이란 것은 동권적인 것도 있고 부동권적인 것도 있다. 쓰 분 조약은 짱방의 완전한 동권에 기초하며 체결되었기 때문에 동권적 조약이다.

대소민족간의 동권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쓰 베트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되리라고 인정한다. 각 개민족은 대소를 물론하고 다만 그 민족에게만 속하였고 다른 민족들에게 없는 자기의 절적 특점과 자기의 특수성을 가졌다. 쓰 베트 사람들은 인정한다. 이 특점은 각 개민족의 세계문화의 공동보고에 이바지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풍부하게 하는 공

훈인것이다. 이와같은의미에서 모든민족은 대소를물론하고 동등한지위에 처하여있으며 또 각개민족은 엇던 다른민족과 던지 동등한 의의를 가진것이다. 때문에 쏘베르사람들은 분단이 적은나라이나 이조약에서 쏘련과의 관계에있어서 동권국가로서 나선다고 인정한다. 적은민족을 큰민족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혐장제국들은 적을것이다. 그들의다수는 적은민족들을 위로부터 내려다보고있다. 그들은 간혹 적은 민족을위한 일방적담보를 반대하지않는다. 그러나 이정객들은은 개언하면 상대자로 인정치않기때문에 동등조약을 체결하지않는다». 쓰딸린대원주의 이말씀은 레닌—쓰딸린당이 행도하는 «위대한 쏘베르동맹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전술하신것이다. 一九一七年十一월七일 사회주의十月혁명

이 승리한 결과에 창건된 쏘베트국가는 자기역사의 제일 첫날
부터 ~~●~~ ~~정정으로~~ 인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전 세계에 제
시하였고 사회제도나 국가체제의 차이와는 아모령 상관이 없
이 모든 나라들과 평화와 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이
노력하여왔다. ~~●~~ ~~1917년 11월 8일 제~~ 一九一七년十一월八일 제
二차 전로 쏘베트대회에서 공포한 평화에 관한 선언서 ~~중~~에 벌
찌 쏘베트주권의 대외정책이 뚜렷이 선명되어있다. 즉 쏘베트
정부는 그 선언서 중에서 장관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인류에 대
한 최대죄악»이라고 날인하고 교전 중이던 모든 나라의 인민들
과 그 정부들에게 공정한 민주주의적 평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즉시 휴전교섭을 ~~●~~ 시작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의 자유와 독립과 평등의 원칙을 국시로 하는 쏘베트동맹은

과거의 제정로찌아가 린접약 소국가에게 강요해온 일절의 불평등 조약을 자진해서 폐기해버리고 평등적 입장에선 새 조약들을 그들과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一九一九年五月에 쏘베트정부는 아후카니스탄을 정식으로 승인하였으며 一九二一年에는 이나라와 동등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동년 二월二十六일에는 「이란」과 세조약을 체결해서 이란에 대한 구 제정로찌아의 예속정책을 완전히 청산하였으며 동시에 중국에 있어서서도 구 제정로찌아가 가지고 있든 온갖 특권과 불평등조약을 역사자진해서 폐기하였든 것이다.

이와같이 쏘베트동맹은 三十一년의 자기역사를 통하여 시종 일관 조급도변함없이 전세계 모든인민들의 평화와 안전과 평등적인 국제협조관계의 확립을위해서 부단히싸워온것이다.

오늘 위대한 쏘베트동맹은 제二차 세계전쟁에서 동서양방의 제약소민족들을 억압파 노예의 기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뿐아니라 이민족들의 국가적 독립파 민주발전을 백방으로 원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쏘베트동맹의 이리한 정의의 대외정책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원조로 말미암아 북조선에서는 해방후 3년동안 정치 경제 문화 각방면에서 위대한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어 독립국가건설의 뿐만한기초를 닦아놓았으며 우리인민은 이리한 승리에 기초하여 오늘 통일적 최고립법기관인 조선최고인민회의와 중앙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서 우리민족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조국을 운영하며 자기의 발전을 도모할수있는 온갖 조건들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쏘베트동맹은 조선인민의 각계

각 총의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조선중앙정부가 수립된 조건 하에서 자기군대를 북조선지역에서 철거할 것을 응낙하였으며 다시 조쏘량국간의 외교판계 및 경제판계를 설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위대한 쏘베트동맹은 이와같이 북조선의 민주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위에서도 우리조국의 국가적 독립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초소에서서 백방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쏘베트 대원수가 령도하는 위대한 국제민주세력의 선두에선 쏘베트 동맹을 자기의 해방자로서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옹호하는 진정한 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동맹파의 외교판계 및 경제판계의 설정에 뒤이어

몽고인민공화국·파란인민공화국·체코스로바끼아인민련방공화국
루마니아인민공화국·유고슬라비야인민련방공화국·헝가리인
민공화국등의 제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계속설정
하게 되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활동은 넓이 국제무대위
에 진출하였으며 조선인민은 세계자유애호인민들의 동등한 일원
으로서 영예롭게 국제무대위에 나섰다. 오늘 남북조선인민의
절대지지와 환영을 받는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되고 이 공화국정
부를 국제민주세력의 선두에선 강력한 쏘베르동맹에 등인하고 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친선을 강화할 조건 하에서 자유와
독립을 허구하며 제인민간의 친선파협조를 급원하는 조선인
민의 정당한 요구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반동세력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승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더욱 고무된다.

三천만 전체 조선인민은 쏘베트 동맹인민파의 해방파원조에서 떳떳이 진 군은 친선을 영원불멸하게 일총화고히 하며 민주주의 제국가의 평화애호인민들과의 국제적 친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공화국 중앙정부와 그의 수상이신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더욱 둔튼히 견속하여 공화국 정부의 정장을 충실히 실천함에 전체력량을 더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여 영원히 공고발전하라!

군 중 선 동 사 업 강 화 를 위 하 여

中華書局影印
卷之三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통하여 군중선동사업은

적지않은발전과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당중앙위원회三차회의에서 『협소학선동사업형식으로 부터 근로대중속에서 광범한선전사업형식으로 넘어간』 대대한 결정과 『선거선전사업에 동원되었던 선전원들을 류론이 조직하여 재교양시키며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확보』 할것에대한 허가이동자의 간곡한 지적이 있은후 각급당단체는 이에대하여 다내한노력을 거듭하여왔다.

오늘 많은당단체의 군중선동사업은 민주선전실을 차지 사업의 기본중심으로하여 대중속에깊이 자기체계를 수립 하였으며 많은선전원들이 선진적 지도리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황해도봉산군당단체는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편하여 정상적으로 군중선동사업의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민주선전 실선전원들의 철적향상을 위하여 군당부에서는 1개월에 1차이 상 민주선전실선전원 단기강습회를 조직하여 민주선전실운영방법과 군중속에서의 선전원들의 사업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강습을 주고 있다.

결과로 봉산군내의 많은민주선전실들은 군중선동사업의 기분중심이며 광범한대중의 튼튼한 사상적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군중선동사업의 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어 있다. 실제로 봉산군서종민당부에서는 면내 민주선전실선전원들을 면당위원장이 직접비준하여 우수한 선전원들을 선발배치하고 민주선전실의사업계획을 세밀이검토지도하며 민주선전실사업을

제때에 취급하여 결산해주므로서 면내 민주선전실사업의 거
대한 발전을 튼튼이 보장해 주고 있다. 서종면 예로리 민주선전실
은 예로리 세포의 세밀한지도 밑에 동리 전체 군중을 대상
으로 성과적인 군주선동사업을 조직하고 있으니 그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보면 첫째一周일에 一차이상 영농에 대한 문제와
모범농민의 증산경험담을 듣는 좌담회를 조직하여 농민들의
영농방식의 개선발전과 증산의혹을 고도로 앙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一周일에 二회이상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독보회를 조
직하여 군중들에게 국제국내정세를 전이 해석침투시키고 있
다. 둘째로 벽보 생산경쟁그라흐등을 광범이리용하여 동리
의 협동성 농민을 친양하며 나태한 농민을 비판하는 사업을 광범
히 조직전개하므로서 군중들의 자각적으로 되는 정치적 각성

을 축성시키고 있다.

황태제 철소당부는 로동자들의 연간 계획 원수를 위한 증산의 유통을 일종 제고시키며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민주선전실을 성과적으로 활용시키고 있다. 즉 각 직장마다 설치되어 있는十八개의 민주선전실은 상호 현장선전 및 군중문화사업에 대한 경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개월에一次 각 직장의 생산실적을 총결합과 함께 현장선전 및 군중문화사업을 총결하여 그 성적표를 작성해 시하고 직장대회에서 이를 발표하므로서 로동자들의 증산의 축을 고도로 제고시키고 있다.

각직장마다의 민주선전실은 로동자들의 문화 수준에 대한 개월별로 되는 도표와 개인별로 되는 개월단위의 생산실적을 제시하고 모범로동자 및 열성로동자의 사전과 성명을 게시하였으

며 그 바깨로 동자들의 제문화 작품을 선전원들이 성직을 예
여 계시하고 있었다.

동자에 각 민주선전실에서는 무사고 작업 경험 담 증산비 결에 배
한 좌담회를 조직하며 독도회 토론회 등을 일정한 사업계획
에 의거하여 조직하고 있다.

황해제철소내의 선전원들은 군중들 가운데서 위신 있는 열성
일꾼으로서 배치되어 있으니 그들은 사업조직과 구두선전으로
서 뿐만 아니라 질재생산에서 모범을 보이므로서 군중들의 생산
의욕을 북도다 주고 있다.

이와 같아 많은 당단체에 있어서 군중선동사업이 많은 발전
과 개선을 가져온 반면에 아직도 부분적 당단체에서는 군중
선동사업을 형식적 일률적으로 지도하며 협소한 선동사업의

식을 버서나 근로대중속에 깊이 체계를 수립한 광범한 선선사 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황해도 연백군 당단체는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편할 대신에 많은 선거선전실을 그대로 방임하여 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선전원들을 둔트히 조직하여 재교양시키는 사업을 전여동학이 하고 있다. 동시에 연백군 당선전선동부에서는 민주선전실이 갖는 바의의의 종대성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도함으로서 많은 민주선전실이 간과만 불어 있고 실제사업은 전여조직하고 있지 않다.

실례로 연백군 화성면 용천리 민주선전실은 조이삭 강낭이 이삭을 말리는 전조장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화성면 대아리 민주선전실은 혼백을 모시고 많은 군중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형편이었

다. 연백군내에 있는 대부분의 민주선전실은 그장소와 설비가
태단아 부족하며 면당부와 세포에서 민주선전실사업에 대하여
당적지도사업을 계울리하는 관계로 민주선전실내에서 체계있는
군중선동사업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연백군내에서 만기현물제 납부사업에 있어서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광범한 선전선동으로서 농민들의 자각
적 열성을 더욱 제고시킬 대신에 군 민전 또는 면인민위원회에
서 파견한 선전원에게만 의뢰하는 옳지 못한 경향을 지어낸 것
이다.

함남단침군당단체는 자기군내에 있는 많은 광산로동자들에 대
한 선전사업을 등한이 하며 직장내의 민주선전실을 성과적으로
활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설례로 로동자六百명이 나있는 만덕광산에는 불충분하게 설비된 민주선전실이 단한개 설치되었을뿐이었으며 로동자들의 생산의혹을 양양시키며 문화향상을위한 제반사업이 내단이미약하게 진행되고있었다. 부동광산에는 로동자가 七百명이나있는 큰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선전실을 설비조차하지않고있으며 직장내에서 군중선동사업및 군중문화사업을 전여 조직하지않고 있는 엄중한 상태였다.

오늘 민주조국창건에 있어서 그핵심으로되는 로동계급의 정치의식제고와 군중문화향상을위한 사업은 어느사업보다도 진급한 중요사업이다.

단천군당단체의 군중선동사업은 엄중한 형식적 편파성을 할각하지못하였으며 협소한 선동사업형식을 벼서나지못하고있

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오늘 군중선동사업이 갖고 있는 광동된약점은 대중속에 깊이 선동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전원들의 질적수준이 대단이 저급한데로 귀결된다.

오늘 우리당 군중선동사업이 힙소한 선동사업형식으로부터 군로대중속에서 광범한 선전사업의 형식으로 완전이 넘어가기위해서는 이상에 지적된 부분적 당단체들의 사업상 오유들을 시급히 퇴치하며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리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군중선동사업의 른론한체계수립에 관한문제이다. 우리당세포의 선전원들은 민주선전실을 통하여 사업하여야 하며 우리당세포에서는 선전원을 민주선전실에 파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서 민주선전실은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침투된 말

단선전기판으로된다.

민주선전실은 생산직장에는 매개작업장마다 설치하고 농촌
어촌에도 二十여호이상되는 부락에는 가능한한 전부설치할것
이며 가두에는 개리에 二개이상설치할것이다.
민주선전실에는 五명 七명의 무급선전원을 배치하여 다

음파같이 그사업을 분공하여야한다.

민주선전실책임자 一명

독보회 좌담회 토론회등을 단임한 선전원 一명

교이 만화 벽신문 속보판 그라호판등의 사업을 단임하는
선전원 一명

문학 예술 체육등의 동호회를 단임하는 선전원 一명

도서활용과 학습을 지도하는 선전원 一명

이와같이 그사업을 분공한 선전원들은 열성군중들을 조직하여 자기사업을 분공하며一定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그실행을 당앞에 책임져야한다. 각직장당부 및 면당부에서는 민주선전실선전원을 유능한 열성얼꾼으로서 배치하도록 노력할것이며 세포위원회에서는 일주일에 차이상 민주선전실사업을 검토하여 비판하며 개월에 차이상 세포총회에서 민주선전실사업을 결산하고 당변과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로는 선전원들의 절적수준제고를 위한 문제이다. 군당부에서는 개월에 차이상 민주선전실선전원들을 위한 단기 강습을 조직하여 리론수준제고는 물론 군중선동사업의 방법적인 재료를 많이 제공해줄것이며 면당부에서는 개월에 차이

상 우주한선전원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하는 경험교환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각급당부에서는 선전원들에 대한 사업 조직방법 국제정체 및 링스-레닌주의적 기본지도리론에 대한 질문회를 조직하여 선전원들의 자체학습을 추동시키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진행할것이다.

셋째로는 민주선전실의 장소와 설비문제이다. 민주선전실이 참으로 군중들의 학교이며 애국적 사상의 튼튼한 기지로서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와 설비가 군중앞에 위선을 가질수있도록 되지않어서는 않된다. 오늘 황해도 연백군내의 민주선전실 모양으로 대부분이 남의집 사랑방이며 조이삭이나 강낭이이락을 말리는 전조장이 되어서는 군중들이 민주선전실을 옮지인식할수없는것이며 당이요구하는 고령한파업을 수행할수는 도

체이없는것이다. 민주선전실은 군중들에게 현대적 문화의 감화를 줄 수 있는 문화적 제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민주선전 실에는 쓰ibble 대원수의 초상화와 김일성 주상의 초상화를 장식하여 야 할 것이다. 기타 몇개의 기본 표어를 제시할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과업에 대한 표어와 시사만화 등을 제시하고 영농계 회표 중산경쟁도표 문맹자명단과 같은 그마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민주선전실 선전원과 적장 또는 마을 열성자들의 창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명랑하고 전설적이며 문화적인 민주선전실을 꾸밀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선전실에는 장기판 바둑판을 비롯한 간단한 오락기구와 라디오 축음기 농악기구 및 신문 잡지 등을 배치해

두어야 한다.

오늘 이 민주선전설의 장소와 설비에 대하야 각급당단체는
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부족하다.

직장 농촌 가두의 텁주선전설의 장소와 시설 확충에 대한 사
업을 동기전으로 완수하기위하야 각급당단체는 다대한주의를
돌릴것을 제기한다.

넷째로 제기되는문제는 민주선전설을통하여서 실행되는 군
중선동사업의 조작방법이다. 민주선전설을통하여서 수행되는
군중선동사업은 어테까지나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야하며 군중
상호간의 경험을교환하는네로부터 나타난 그 우점 단점을 더욱
명확히 판별하여주며 우점에 대한 찬양과 단점에 대한 비판으로
서 군중자신이 스스로 자각적인 정치적작성을 배양하도록하

는 원칙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지때문에 민주선전실 선전원들은 군중들에게 무조건으로 설복시키려하거나 군중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사업작풍을 가져서는 않된다. 이와같은 주의에 기초하여 민주선전실을 통하여 수행되는 군중선동사업을 다음과같이 전해할 것을 제기한다.

첫째 민주선전실은 적장또는 마을사람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야 언제나 모이는 장소로 되어야 한다.

모인 사람들은 장기 바둑을 뛸 사람은 장기 바둑을 뛰고 신문을 볼 사람은 신문을 보고 책을 읽을 사람은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축음기를 들을 수 있게 누구나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군중들로하여금 모이라는 독촉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모일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데 크다란 역할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민주선전실에서는 주일에 차이상 영농에 대한 좌담회 무사고작업에 대한 경험담 또는 모범로동자 및 농민의 증언에 대한 경험담을 듣는 좌담회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좌담회라하여 의장을 선거하고 언권을 청하는식으로 엄격하게 할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누구나 톡터려놓고 말할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선전원은 이좌담회에서 직장이나 동리환경에 결부시켜 열성 한 군중과 나래한군중을 분별하여 열성자를 친양하며 비열성자를 비판하므로서 군중자신들이 엄격한결론을짓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군중들에게 자작적으로 정치적각성을 제고시

키는 간이한 선전방법인것이다。

셋째로 민주선전실에서는 주일에 三회이상 실문기사를 중심으로 독보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독보회는 미리 재료를 충분이 연구하여 그 중심을 추려 전달하는방법으로 조직할것이며 너무 지나하게 하여서는 않된다. 한 문제를 가지고 몇시간씩 군중들이 알아듣지도 못할말로 연설한결과 군중들이 아모홍미도느끼지못하는방법은 엄중이 경계하여야한다.

독보회가 끝난후는 반드시 개별적 담화를 조직하여 국제국내 정체에대한 군중들의 인식정도를 검토하여야하며 군중들이 자연스럽게내놓는 여의가지 의문들을 선전원들은 간이하게 설명 해설해주어야한다.

특히 독보회는 만동분자들에대한 적개심을 고무하며 미제

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한 고도의 증오감을 양양시키는데
에 중점을 두어조직할 것이다.

넷째로는 벽보판 계시판 생산경쟁그라흐판의 이용이다.
벽보에는 직장 또는 동리의 열성자에 대한 친양과 태만분자
에 대한 비판을 주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되 그를一周일
에 한번식 직장 또는 동리요처에 갈아붙일 것이다.

새 벽보를 불일적에는 낡은 것은 반드시 땔것이며 비판문을

넘어가 흑하게 써서 군중들에게 공포를 주어서는 않된다.

특히 벽보를 통해서 직장 또는 부락의 미담을 널리 발표할
것이며 부근 직장 또는 부락의 우점을 소개하는 사업을 중심으
로 전개할 것이다. 계시판 속보판등을 통해서 중요한 신문
기사를 복사 또는 그대로 복이어 소개할 것이며 라디오에

발표되는 중요시사문제를 급속히 소개해주는 사업을 조직할 것이다。

생산경쟁그라흐판에는 모범로동자 또는 농민의 생산계획 및 생산경쟁실적표 등을 게시하므로서 군중들의 생산의욕을 북도다주는데 많은조력을줄것이다. 특히 생산경쟁그라흐판은 개인대 개인 또는 부락대 부락의 생산실적을 간이한도표로서 그리어 소개하는내용을 중심으로하되 개월단위로 생산계획수행실적을 총결하고 갈아붙일것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동기 고공품생산사업을 추진시키는데있어서 생산경쟁그라흐판을 고도로 활용시킬것이다.

다섯째로 민주선전실에서는 때때로 오락회를 조직하여야한다. 동호회원들을 발동시키어 음악 연극등을 공연하며 각종체

육회 및 장기 바둑 시합 등을 간단이 조직함으로서 문화 향상을 위한 군중들의 창발력을 북도 다출 것이다.

여섯째로 민주선전실에 비치한 도서는 민주선전실에 와서 읽을뿐 아니라 순회적으로 도서열람을 조직하여 군중들의 독서 열과 아울러 독서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조직하여야 하며 필요 한 시간에는 서적들을 제때에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매월 계획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민주선전실책임자는 반드시 매월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사업별로 각 선전원에게 분공하여 주며 그 사업 수행을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이 민주선전실은 군중선동사업의 기본중심이며 군중 속에 가장깊이 침투된 선전선동기반이다. 민주선전실사업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당 선전선동사업의 급속한 추진을 가져오는

것이다.

각급당 선전선동일꾼들은 민주선전설발전의애로인 장소와
설비 및 선전원의 철적향상을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강력히
제기한다.

이와같이 일관한 체계위에서 직장 농촌 가두의 군중선동
사업은 시기를 노치지않고 적기 적시에 군중을 조직발동시키
므로서 직장 농촌 가두의 군중선동사업은 급속히 강화발전
될것이다.